

목포 해상케이블카 손님맞이 총력

추진사항 점검 보고회 개최...내년 4월 준공 목표 T/F팀 설치, 홍보·교통·숙박 등 19개 항목 점검

목포시가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전방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시는 총괄·예산, 관광, 도시경관·환경, 교통, 도로, 공원녹지, 안전, 음식·위생, 문화예술 등 10개 분야를 아우르는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T/F팀은 지금까지 8차례 추진사항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고 13개부서의 19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홍보, 관광, 교통, 도

로, 숙박 및 음식점점 진열·위생 등이다.

시는 해상케이블카 개통시기에 맞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모바일, 블로그, 국내의 SNS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스포츠광 등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면서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한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관광객 증가로 주요 도로에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내 버스 운행 확대, 정류장 확충, 주차장

확보 등 대책도 마련 중이다.

주차장은 유달산, 고하도, 해양대학교 등에 대형 149대, 소형 1,227대 등 총 1,376명의 주차장을 확보했고 단계별 주차장 이용계획을 수립해 주차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교통분산을 위해 주말에 유달산 일주도로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종합상황실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호를 조작해 차량 소통을 개선할 계획이다.

북향 국도 1호선에서 케이블카 주차장 진입도로가 단일노선으로 교통 폭증과 차량 정체가 예상돼 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해 덕산마을입구-북향

물양장 간 도로를 2020년까지 개설할 예정이다. 도로표지판도 인근 시군과 협의해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숙박업소 및 음식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친절·위생서비스를 강화하고 내년을 맛의 도시 원년으로 삼아 목포 음식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해상케이블카와 천사대교 개통 등 목포는 해양관광도시의 호기를 맞고 있다”면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철저히 사전 점검해 관광객 맞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상케이블카는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목포=박승경 기자

“군민·현장 중심 군정 구현할 것”

취임 100일 맞은 명현관 해남군수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계기로 군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해남 발전의 비전을 세워 다시한번 빛나는 해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취임후 군민 중심의 열린 군정 구현을 최우선 목표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내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쳐왔다.

명 군수는 “지난 100일은 군민들과 소통하는 민선7기 해남군정의 기틀을 만들고 시급한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 왔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장에서 군민들과 만나면서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명현관 군수가 취임이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군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 군정으로 이를 위해 주민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운영해 현안사업의 문제점을 직접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또한 군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미소 오프라인 매장을 비롯해 참가들기를 가공공장, 농산물 종합 가공종합지원센터 등이 속속 준공돼 안정적 농가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남 발전의 장기 동력이 될 대형 사업들의 국비 확보도 눈에 띄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국비 150억원 확보를 비롯해 노후 상수관망 교체 331억원과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250억원 등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는 상수도 사업에도 581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또 군 노인회관 신축과 문내면 상삼침수지구 배수펌프장 보수 등 긴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비롯해 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목적예비비 267억원도 확보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전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 도입 및 지역 상품권 발행 추진은 농업활성화와 지역내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을 위한 혁신적 선례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민선7기 공약사항 5개 분야 65개 과제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세부실천보고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명 군수는 “공약사항은 세부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착실히 추진해 군정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완도, 미국서 수산물 80억 수출 계약 쾌거

현지 바이어 1대1 수출 상담 해양 치유 산업 설명도 진행

완도군 해외시장개척단은 최근 미국 LA 현지에서 전북,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가공품 약 80억여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LA방문에는 해외시장개척단은 완도군 4명, 완도 식품수출협회 수출기업 7명이 참여했다.

이번 수출 상담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수출 단체와 바이어를 초청해 완도군 유망 수출 업체와 현지 바이어 1대1 매칭 수출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바이어와 LA 현지 언론인들을 초청해 완도군을 소개하고 수산물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완도군의 역점사업인 해양치유



완도군 해외시장개척단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해외바이어를 상대로 수산물 제품을 설명했다. /완도군 제공

산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수출 상담이 본격 진행되면서 각 업체 업무 협약과 계약 체결이 이뤄졌으며 완도산 수산물 유통 판매를 위한 업체별 3자 업무 협약 2건을 맺었고

그 중 한 건은 멕시코 업체로 향후 멕시코 시장 진출 전망을 밝히고 있다.

수출상담회는 해양수산부 LA수출 지원센터의 협조로 진행됐으며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맞춤형 바이어 상담을 통해 성과를 얻게됐다.

한편 해외시장개척단은 LA 한인 축제에도 참여해 해조류 가공품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완도=최규옥 기자

완도군은 최근 '2019년 에코 푸른숲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 참여 공모사업에 2곳이 선정돼 사업비 총 1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금일읍 가로수 조성사업 1억 원, ▲삼두마을 풍치숲 조성사업 7,000만 원 등 총 2개소로 각 마을 주민·단체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에코 푸른숲 전남 만들기 사업'은

주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으로 마을 유희부지와 자투리땅 등이 주민들의 휴식과 소통의 장소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에코 푸른숲 전남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총 10곳의 숲이 조성됐으며 주민·단체의 참여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옥 기자

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활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해소

진도군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피 주는 사업이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확대 시행해 지난 8월말에는 지난해보다 신청자 수가 52% 증가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위해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발굴·시행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병호 기자

완도 에코 푸른숲 전남 만들기 선정

금일읍 가로수·삼두마을 풍치숲 조성

완도군은 최근 '2019년 에코 푸른숲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 참여 공모사업에 2곳이 선정돼 사업비 총 1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금일읍 가로수 조성사업 1억 원, ▲삼두마을 풍치숲 조성사업 7,000만 원 등 총 2개소로 각 마을 주민·단체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에코 푸른숲 전남 만들기 사업'은

주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으로 마을 유희부지와 자투리땅 등이 주민들의 휴식과 소통의 장소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에코 푸른숲 전남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총 10곳의 숲이 조성됐으며 주민·단체의 참여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옥 기자

영암 학산지구 마을정비 업무협약

153억 투입 공공주택 120호 건립

영암군은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학산지구마을정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으로 학산면 독천리 일원에 사업비 153억원을 투입 공공주택 120호를 짓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주택사업 인허가와 관계기관 지원협의, 관련 기반시설 설치·지원,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건설사업비의 일부와 기반시설 설치비·원인자 부담금, 마을계획 용역비를 부담한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구지정을 비롯해 지구계획·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토지 보상, 주변지역 정비계획 용역 시행 등의 업무와 주택건립 후 운영·관리를 수행하며 주택건설비용과 마을계획 용역비를 부담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공동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마을정비계획과 소규모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산면 권역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영암 남쪽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150호, 삼호 용양지구 행복주택 사업 250호에 이어 학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120호를 추진함으로써 품질좋은 주거공간을 확보해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의 기틀을 다졌다”라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클릭! 고향 소식



강진 해외 여행사 대표단 초청 팸투어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최근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중국 3개국 여행사 대표단 30여명을 초청해 2박 3일 일정으로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진행됐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2박 3일 간 농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정과 감성을 경험하는 푸소체험과 힐링의 섬 거우도 트래킹 및 레저체험, 고려청자 물레체험, 강진만달대밭 산책 등을 체험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신안 마늘 기계파종 시연회

신안군은 최근 안좌면에서 농업인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력재배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마늘 기계파종 시연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공모사업으로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을 추진한 양영복농가 포장에서 실시했다.

강행선 소장은 “민선 7기 공약인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늘양파 기계화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영광 도시민 팸투어 추진

영광군은 최근 도시지역 귀농귀촌 희망자를 영광으로 초청해 귀농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도시민 영광체험 프로그램'은 광주·전남귀농귀촌학교 졸업예정자 45명을 대상으로 농촌체험과 함께하는 도시민 팸투어를 추진했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선배 귀농귀촌인 농장을 방문해 영농정착 현장을 탐방하고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들어봄으로써 귀농귀촌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영광=곽승근 기자



장흥 부산면, 지역 리더 벤치마킹

장흥군 부산면면협의회(회장 문경호)는 최근 관내이장·세마을 지도·변영회·주민자치위원·자율방범대 등 지역 리더 40여명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면협의회장 문경호는 “벼수확 하기 이전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우리지역과 비교하면서 애항심을 고취시키고 도시민 관광객을 유치하는 미래의 부산면 발전을 구상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